



# 서경대신문

1955년 5월 23일 창간  
발행인·김범준 / 주간·한영교  
편집장·김나연 / 인쇄인·발해기획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02713)  
전화·940-7257 / www.skpress.org

사회 >> 3면

혼란스러운 조기 대선... 22일간의 사투 끝에 당선된 이재명

기획 >> 7면

전화보다 문자, 즉답보다 '타이밍'이 중요한 시대

현장르포 >> 8면

십자가와 연꽃, 공존의 한국 속으로

제590호

2025년 6월 13일(금)

## 폭우도 꺾을 수 없었던 열정... 2025 대동제 Blooming 성황리에 종료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서경대학교 대동제 'Blooming!'이 개최됐다. 축제 동안 캠퍼스 곳곳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부스가 즐비했으며, 이를 즐기 위해 많은 학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캠퍼스를 찾았다. 학우와 방문객 모두

가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올해 대동제는 제53대 한빛 총학생회와 교내 연합 IT 동아리 '멋쟁이사자처럼'이 힘을 합쳐 축제 안내 사이트를 새롭게 선보였다. '멋쟁이사자처럼'은 사이트 기획과 개발을

담당해 공연 일정, 부스 위치, 먹거리 메뉴, 분실물 안내, 비상 대피로 및 AED 설치 위치 안내 등 축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했다. 특히 동아리 '다음'의 도움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를 지원해 외국인 학생들도 불편함 없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부스 이용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이트에 테이블링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학우들은 원하는 시간에 맞춰 부스를 예약해 기다림 없이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아동학과 부스를 테이블링으로 이용한 한 학우는 "작년에는 만석인 주점을 이용하려고 부스 앞에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는데, 올해는 테이블링 시스템 덕분에 훨씬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빛 총학생회는 이번 대동제에서 다채로운 이벤트들을 기획했다. 먼저, 'Blooming Bingo!'는 여러 부스를 돌며 빙고를 완성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Lucky Draw' 이벤트는 캠퍼스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1부터 15까지의 숫자 중 5개를 직접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상금 30만 원이라는 큰 규모의 상품이 걸려 학우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첫째 날에는 공연 없이 부스 운영에 집중했다. 총학생회 부스에서는 매년 큰 호응을 얻는 '도레미파솔시조' 이벤트와 함께 'Blooming!' 판대, 재학생 인증 시 핑거라이트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각 단과대와 학과, 자치기구 부스들이 다양한 먹거리와 이벤트를 선보였다.

둘째 날에는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예술교육원, 유드림, 철인 28호, SDR의 공연이 이어졌고 BIG Naughty, 권은비, 카더가든의 무대가 펼쳐졌다. 이처럼 활기찬 공연과 함께 축제 현장은 더욱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공연과 함께 다양한 부스도 활발하게 운영됐다. 또한 청운관 L층에서 운영된 포토 부스에도 축제의 즐거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축제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온종일 비가 내렸다.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는 천막을 추가로 설치해 학우들이 폭우 속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천 시 안내사항을 학과 단위에 빠르게 게시해 안전사고가 없는 축제 운영을 최우선으로 했다. 본교 재학생은 9일 17시부터 총학생회 부스에서 우비를 받을 수 있었다. 우비는 선착순 500개 한정으

로 재학생은 입장 도장을 받은 후 수령 가능했다. 15시 30분부터는 실용음악학부, 애니문, 위커스, 그라미, 실용무용학과와 공연이 이어졌으며 축적 소개팅 이벤트는 우천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YB밴드, ITZY, DJ 파스텔로의 무대가 이어졌다.

축제를 즐기러 온 21세 강규빈 씨는 "서경대 대동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오게 됐다"며 "정말 재밌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분위

기가 너무 좋아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연출적인 것도 되게 좋았다. 무대의 레벨과 공간감이 마음에 들어 좋은 공연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내년에 서경대학교 입시를 치를 예정인데 반드시 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최소정 수습기자

(2022215046@skuniv.ac.kr)



## 뜨거운 청춘, 뜨거운 열기

2025 인싸·이공체전 열띤 참여 속 마무리

지난 5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인문사회과학대학 체전인 '2025 인싸체전'이 열렸다. 풋살, 농구, 족구, 족배구, 피구, 이어달리기 등의 종목이 풋살파크와 스포스퀘어에서 진행됐다. 체전 외에도 마리오카트 이벤트, 보물찾기 행사와 같은 다양

한 이벤트도 있었다. 덩고 지친 학우들을 위한 구슬 아이스크림, 쥬러스, 회오리감자와 같은 다양한 먹거리를 사 먹을 수 있는 간식 부스도 운영됐다. 접전 끝에 군사학과가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종합 준우승은 경영학부가 차지했다.



이공대학 체전인 '2025 이공체전'은 5월 26일(월)부터 5월 30일(금)까지 이어졌다. 남자 종목으로는 풋살, 농구, 족구가 열렸으며 여자 종목에는 족배구, 피구, 판위집기가 진행됐다. 남녀 혼성 종목인 이어달리기와 줄다리기도 있었다. 치열한 경기 끝에 남자 종합우승 1등은 전자컴퓨터공학과, 2등은 금융정보공학과, 3등은 나노화학생명공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가 공동 수상했다. 여자 종목은 인원이 적어 1등 나노화학생명공학과만 수상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서경대학교 학생 식당, 식사 금액 500원 인상

서경대학교 학생 식당이 2025년 4월부터 식사 금액을 기존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을 했다. 가격 조정은 학기 중 운영되는 중식 메뉴에 일괄 적용됐다. 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현장 결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학생 식당은 학기 중 평일에 운영되며, 기본 한식 메뉴를 중심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또한 특정 요일에는 특식이 제공된다. 매주 변경되는 메뉴는 총학생회 '한림관 학식 알람'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가격 조정은 별도의 메뉴나 서비스 변경 없이 식사 가격에 일괄 적용됐다.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기자가 주변 학우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은 인상된 가격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6,000원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는데, 500원이 더 오르면 매번 먹기는 부담된다"는 반응이 많았고, "식사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도 아닌데 가격만 오르니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일부 학생은 "이럴 바엔 외 부 식당을 이용하겠다", "비슷한 가격에 더 나은 식사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가성비를 생각해 대부분 편의점에서 식사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하루 두 끼 이상을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는 기숙사생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더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가격 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중립적인 입장도 존재했다. 한 학우는 "밖에서 밥을 사 먹으면 7,000~8,000원은 기본이라 학식이 여전히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액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

이지만 균형 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면 찾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격 인상은 서경대학교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일부 대학 역시 2025년 들어 학생 식당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그러나 식사 가

격이 학생 복지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가격 변동 시 학생들의 체감 부담도 크다.

학생 식당은 단순한 급식 공간을 넘어, 많은 재학생에게 일상 속 중요한 식사 공간이다. 그만큼 식사 의 질과 가격은 학우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요소이며, 실질적인 학생 복지를 위한 운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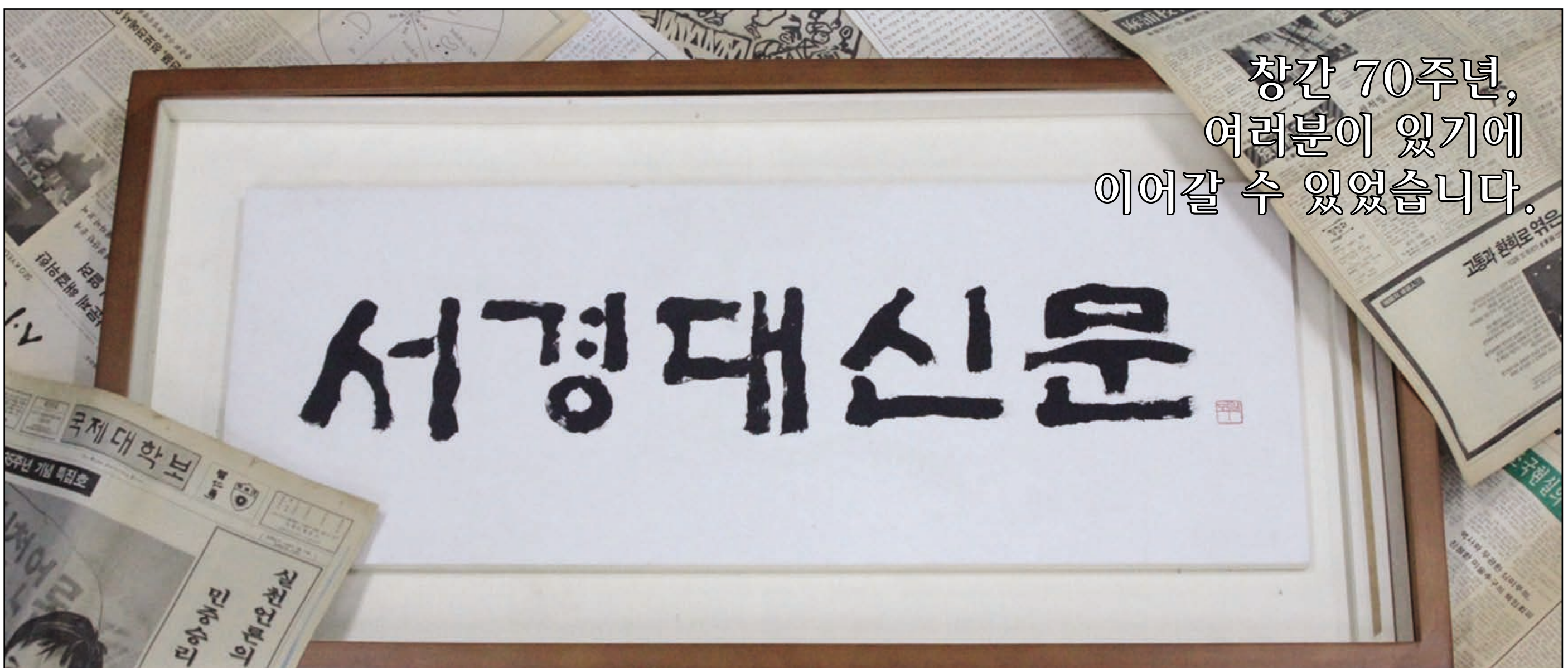
김규민 수습기자

(kyum7158@gmail.com)

### 사 령

6월 13일자로 아래 학우를 면합니다.

- ▶ 면 부편집장 김민채 (금 공 24)
- ▶ 면 수습기자 김규민 (광충영 25)
- ▶ 면 수습기자 송정아 (미웅 2 25)
- ▶ 면 수습기자 정소영 (광충영 25)



# 서경대 택배 수령 환경 '혼돈' ... 분실과 도난 우려에 불만 고조



최근 서경대학교 내 택배 수령과 관련해 학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학교 측에서 지정한 택배 수령 장소가 있지만, 무분별하게 바닥에 쌓이거나 통로를 막는 방치된 택배들로 인해 혼란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중이다.

학교 측은 교내 지정된 공간을 '무인 택배함'이라 명시해 운영 중이지만, 실상은 이름만 무인 택배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인 택배함은 누구나 출입 가능한 개방형 구조에 택배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 선반에 △CJ 대한통음 △쿠방 △우체국 등 배송사가 적힌 명패를 달아 택배를 분류하려는 시도는 보이지만,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부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택배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통행에도 불편을 준다.

택배 분실 및 도난 우려는 점점 현

실이 되고 있다. 에브리타임, 일명 '에타'라 불리는 학생 커뮤니티에는 "1층 무인 택배함으로 배송된 율리브영 택배 훔치신 분은 보시거든 연락 남기세요! 경찰에 이미 신고했고, 학교 측과 배송 기사님과 대화 완료했습니다. 선처 생각 아직 있으니 연락 주세요." "무인 택배함에서 짜파게티 40개, 진라면 80개 가져가신 분 빨리 연락 주세요." 등과 같은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올라온다. 교수들도 택배 분실 및 도난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었다. 한 교수는 "한참 택배를 찾다가 포기했는데, 다시 돌아 보니 택배가 개봉된 채로 있었어요. 누가 자기 물건인 줄 알고 착각해서 가져갔다가 다시 무인 택배함에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라고 피해 사실을 전했다.

이처럼 본인의 택배를 찾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고의 혹은 실수로 택배를 가져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무거운 생수 묶음은 택배 수령 장소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 사용하거나 내용물만 챙기고 택배 상자는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처럼 구조적인 허점이 분실과 도난으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본교 무인 택배함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총무과에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결과 "무인 택배함 관리는 저희 총무 쪽에서 하긴 하는데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는 거죠)." "아직 무인 택배함 개선 계획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무인 택배함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듣기 어려웠다.

택배 수령 환경은 단순히 편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인 시스템이라는 명칭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인'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학교의 책무라는 것이 학생들의 주된 여론이다. 학우들 사이에서는 보다 나은 택배 수령 환경이 언제 조성될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송정아 수습기자  
(songjeonga0328@skuniv.ac.kr)

# 교양 수업, 내가 만든다!

## '2025 교과목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서경대 인성교양대학이 재학생들의 관심사와 수요를 반영해 교양 교과목을 직접 기획해보는 '2025 교양 교과목 아이디어 공모제'를 시행했다. 접수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였으나 이후 6월 8일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공모 주제는 본교의 5대 핵심 역량과 기초학문 영역을 기반으로 한 신규 교양 교과목 기획이었다. 본교 5대 핵심역량에는 △창의적 문제해결 △성과 창출 △글로벌 실무 △공동체 △자기 계발이 있다. 기초학문 영역에는 △인문과 예술 △사회와 세계 △과학과 기술 △미래와 융합 △인성과 체육이 있다. 지원자는 이에 기반한 미래 사회 수요와 재학생의 흥미에 적합한 교양 선택 교과목을 기획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본교 재학생이어야 하며,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참신성 △적합성 △역량 적정성 △실현 가능성을 종합 평가한다.

총 6명을 선정해 시상하며, 상금은 △대상 1명 300,000원 △우수상 2명 각 200,000원 △장려상 3명 각 100,000원으로 총 1,000,000원에 달한다. 결과 발표는 7월 중 본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이다. 다만, 인성교양대학은 적합한 응모작이 없으면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체 응모 인원에 따라서 시상자 숫자가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출처: 서경대 홈페이지

# "나 자신을 알아" 서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자기 탐색 검사 및 결과 상담 큰 호응 이어져

서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가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기 탐색 검사 및 결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자기 탐색 검사는 E-disc 검사, 에니어그램 검사, 고용24 직업 선호도 검사로 총 3가지다. 기자는 세 가지 검사를 직접 받아보며 각각의 특징을 살펴봤다. 결과 상담의 경우,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컨설턴트가 한정돼 상담 대기자가 늘어났다.

E-disc 검사는 대표적인 직무 적성 검사로, 개인의 성격과 행동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용 스타일과 일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심리적 안정성 항목까지 포함돼 있어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미래융합학부 학

생들의 경우 FYP 포트에도 반영되므로 학부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에니어그램 검사는 인간의 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성격 유형 검사다. 이 검사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물론, 내면의 잠재력과 동기를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고 진로 설정에 있어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

고용24 직업 선호도 검사는 흥미 기반 직업 탐색 검사로 최근 L 유형에서 S 유형으로 개편되며 더욱 세분화된 진단이 가능해졌다. 이 검사는 직업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6가지 직업군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후 개인별 흥미 코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직업군을 추천해주어 진로 탐색 초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검사 후에는 결과지를 바탕으로 담당 컨설턴트와 상담이 제공된다. 컨설턴트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래프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 검사 결과를 해석한다. 이를 통해 진로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서경 포탈에 접속해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 상담 메뉴를 클릭한 뒤, 담당 컨설턴트와 상담 일정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상담 상세 구분에는 '진로 검사 및 해석 상담'을, 제목에는 '해당 검사명'을 기재하면 된다. 각 검사에 따라 진행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또한, 검사마다 담당 컨설턴트가 다르므로, 신청 시 유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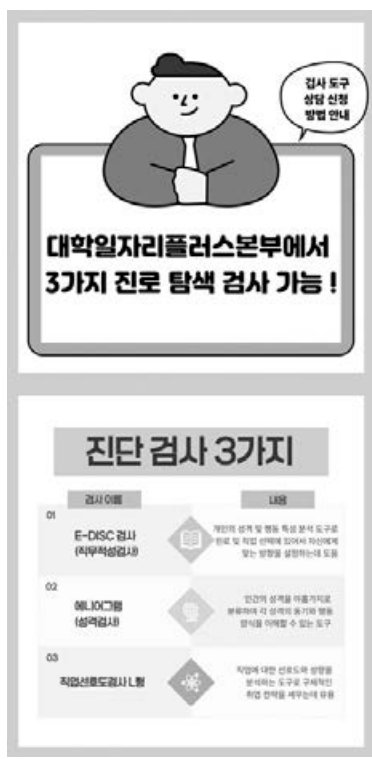
E-disc 검사는 상담 당일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에니어그램 검사는 상담이 확정되면 담당 컨설턴트가 검사 링크와 코드를 이메일로 발송한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 검사자가 사전에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결과지를 출력해 상담 당일 지참해야 한다.

E-disc 상담에 참여한 A 씨는 "FYP 포인트 획득을 넘어 자신의 적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면의 동기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호성 수습기자  
(hosung@skuniv.ac.kr)



# "동물과 함께해요!" 스트레스는 줄이고 즐거움은 높이고

## 서경대 학생상담센터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마이펫' 성료

지난 4월, 서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동물과 함께하는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마이펫'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담관 L층 CO-Working SPACE에서 9일(수)과 16일(수)에 걸쳐 총 2회기로 진행됐다.

1회기에는 '동물과의 교감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를 주제로 동물과 스킨십 미션 스톰런 미션 스빙고 게임 등이 진행됐다. 2회기 주제

는 '동물과의 교감 활동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감 향상'으로 △동물의 감정표현 방법 및 스트레스 반응 알아보기 △노즈워크를 직접 만들어 보고 찾아 먹는 모습 관찰하기 등의 활동이 전개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실제 동물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경쟁률이 높았다.

서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방우영

전담상담사는 "동물매개 치료사 및 동물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의 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즐거움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방 상담사는 앞으로 "재학생들이 평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집단 상담을 계획해 운영하고자 한다"며 "계속해서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

했다. 학생상담센터는 청운관 5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방학에도 '감정이해 프로그램-인사이드 아웃'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출처: 학생상담센터

# 한빛 총학생회, 찬란 사회과학대와 상권 제휴... 학생복지 확대



출처: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지난 4월 18일, 한빛 총학생회와 찬란 사회과학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인근 상권 제휴 혜택을 마련했다.

한빛 총학생회와 찬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지역 상권과 협의해 맞춤형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협약은 학생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일부 점포는 찬란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특별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해 학생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제휴는 식당, 문화, 카페, 액티비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 인근의 식당 '비스트로 홈'에서는 2025년 12월까지 △서경대 학생 우선 이용권 제공 △스테이블당 장독대 빙수 무료 제공 △시원 기간 생맥주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카페 '마이그락'은 음료 및 요거트, 브런치 메뉴 주문 시 전체 금액에서 5% 할인 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헬스장 '디파인더비디짐', 보드게임 카페 '히어로보드게임카페(성신여대점)' 등이 있다. 학생들은 방문 시 학생증이나 서경 포탈을 제시하면 손쉽게 제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경대학교의 한 학생은 "실질적인 혜택이 많아져서 만족스럽다"며 "앞으로도 이런 제휴가 계속 확대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생 역시 "학교 주변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식사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 외 상권의 자세한 사항은 총학생회 인스타그램과 찬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 한 눈에 보는 이슈

## 정치

혼란스러운 조기 대선... 22일간의 사투 끝에 당선된 이재명

## 경제

신냉전·관세 그림자와 정치 격랑, 1분기 성장률 '빨간불'... 부동산 시장도 '살얼음판'

## 사회

사상 초유의 유심 해킹 사태... 국내 통신 3사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사고

## 문화

프랜치스코 교황 선종, 레오 14세 시대 개막... 변화와 연속성의 갈림길

## 연예

결혼 앞두고 동료 여배우와 불륜... 뮤지컬계 큰 파장

## 스포츠

토티엄, '유로파 우승'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 손흥민 생애 첫 우승

자세히 보는 이슈

# 혼란스러운 조기 대선... 22일간의 사투 끝에 당선된 이재명



▲ 출처: AP통신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시작된 이번 조기 대선 정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 지지 세력, 이른바 친명계를 중심으로 결집해 초반 지지도를 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후보 선정에 있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소모했다. 여기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해, 대선은 삼자 구도로 진행됐다.

이재명 후보는 비상계엄에 가장 크게 반기를 든 인물인 만큼, 중도층과 중도 보수층을 회유시키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실용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며 "국민의힘의 찢어진 텐트가 아닌 진짜 초당파 연합에 지지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경기 불안과 청년층 문제에 대한 공약을 앞세워 2030 세대의 지지도 상승을 노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등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난항 끝에 투표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당일에 투표표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에 불참했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에게 대항하기 위한, 이른바 '반명 초당파 연합'은 결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경제, 외교적으로 혼란스러운 현 상황을 타파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대표적인 탄핵반대파 중 하나였기에,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진 채로 중도층 표심을 확보해야 했다.

이준석 후보도 두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 그는 선거

유세 첫날인 5월 12일 자정, 여수 국가산단을 시작으로 전국 유세를 시작했다. 또한 이공계 출신을 강조하며 제조업의 재부상과 과학기술 중점의 국가 발전을 약속했다. 이어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군소정당임에도 지지도를 빠르게 올렸다.

최종적으로 6월 3일 열린 본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49.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문수 후보는 41.9%, 이준석 후보는 8.3%를 각각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당선 직후 그는 "국민이 맡긴 사명, 한 치 어긋남 없이 이행하겠다"며 "국민 통합의 책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6월 6일 낙선한 김 후보와 안부 전화를 나눴다. 정확한 통화 명세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민 분열을 종결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아직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전세찬 수습기자 (jeonsechan12@skuniv.ac.kr)

# 신냉전 · 관세 그림자와 정치 격랑, 1분기 성장률 '빨간불' ... 부동산 시장도 '살얼음판'

글로벌 신냉전 구도의 고착화와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으며 올해 1분기 성장률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조유의 사태와 현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경제 전반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짙어지고 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4월 24일 202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조유의 마이너스 성장을 맞이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촉발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필두로 한 지정학적 갈등 심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키워 각국이 관세 장벽을 높여가 된 계기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후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며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은 수출 물량 감소와 단가 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역시 경쟁 심화와 관세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적인 수출 효과 품목들도 글로벌 수요 위축과 보호무역주의에 직면하며 1분기 실적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실상가상으로 국내의 정치 격변은 경제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새 대통령의 당선은 기업과 가계의 투자와 소비를 재고하게 만들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거래 절벽과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얼어붙고 있다. 새 정부의 고품질 임대주택 및 임대 비율 확대, 전세사기 격정 없는 사회 목표, 부당 없는 전월세 복원,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추진 등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관계자들은 정치권이 당국인 이해를 떠나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경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전달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부진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또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 출처: 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대외적인 풍파와 대내적인 격랑을 헤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지,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현 정부의 정책 선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 사상 초유의 유심 해킹 사태... 국내 통신 3사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사고



▲ 출처: 인천일보

SK텔레콤(이하 SKT)은 지난 4월 19일 오후 11시경, 악성 코드 감염으로 인해 유심(USIM) 사용자 일부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해킹이 일어난 이후 공식적으로 유출 사실을 밝히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돼 비판이 일었다. SKT 측은 초기 브리핑에서 "유심을 사용하는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를 외부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밝혔지만, 피해 규모나 정확한 경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사고를 축소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

다. SKT는 2023년 기준 가입자 2,300만 명의 국내 최대 통신사이다. 그만큼 전례가 없던 '유심 해킹'이라는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사건이 초기에 주목을 받은 것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다. 특히 보안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이후 관련 해킹 사고로 5,000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본 사례가 제도권 언론을 통해 주목받게 돼,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 이 사건

이 심지가 돼,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추후에 해당 사건은 유심 해킹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혀졌다.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유심 교체에 대해 대리점에 몰리는 이용자들도 혼잡이 빚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심 공급 부족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T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유심 보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고, 유심의 공급량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SKT는 해킹 발생 나흘 뒤에야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피해 예방을 위해 권장한 '유심 보호 서비스' 역시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위약금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다. 사건으로 인해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원하는 이용자에 대해 위약금을 그대로 부과한 점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유 대표는 4월 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약금 문제는 현재로선 답변드릴 수 없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원 회장 조롱 글 검열 사건"을 언급하며 SKT의 위선적 태도에 강한 비판했다.

서경대학교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SKT의 대처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건에 분노한 자유전공학부 재학생 A 씨는 인터뷰에서 "가족 모두 약정으로 SKT를 이용 중인데, 뉴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청문회를 보며 당황스러웠고, 기업의 이익보다 피해자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SKT는 오는 6월까지 유심 전면 교체를 완료하고, 위약금 관련 사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찬 수습기자 (jeonsechan12@skuniv.ac.kr)

#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레오 14세 시대 개막... 변화와 연속성의 갈림길



▲ 출처: 연합뉴스

지난 4월 21일 가톨릭교회의 개혁과 포용을 이끌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부활절 다음 날 전해진 비보는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과 종교를 넘어선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을 안기며 한 시대의 마감의 알렸다. 그의 선종으로 가톨릭교회는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를 거쳐 교회 역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를 맞이하게 됐다.

"가난한 자들의 교황"으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과격적인 행보로 존경받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타계 이어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반적으로 교황들이 묻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로마 성모대성당에 안치되길 희망하면서 마지막까지 그의 검소함을 보여줬다.

1936년 아르헨티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 교황(본명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은 2013년 비우렐름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교황으로 선출되며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교황은 2013년

죽위 이후 가톨릭교회의 오랜 관습을 깨는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교황청 개척, 기후 변화 대응, 난민 포용, 종교 간 대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교회의 현대화와 사회적 역할 확대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후, 차기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시스티나 성당에서 진행된 콘클라베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비우렐름 추기경들의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웠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임명한 유홍식 추기경이 참가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마침내 지난 5월 8일(로마 현지 시각) 시스티나 성당 골목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제267대 교황으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선출됐음이 알려졌다. 그는 교황명으로 '레오 14세'를 선택했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미

국 출신 교황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인 그는 빌라노바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교회법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구파이면서 20년 이상 페루에서 활동하며 현장 경험을 쌓은 현장파다. 이 때문에 미국과 페루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다국어에 능통하다.

레오 14세는 2014년 페루 치클라요교구장 주교로 임명됐고 2023년에는 교황청 주교부 장관 겸 교황청 라틴아메리카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돼 대주교가 됐다. 또한 같은 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으로 서임했다. 그의 이러한 다양한 이력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와 보편 교회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레오 14세는 69세라는 젊은 나이이기에 현 교황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 ‘서경대신문’ 창간 70주년을 축하하며



서경대학교 총장 김범준

서경대신문 창간 70주년과 지령 590호 발행을 맞이하여, 우리 대학 공동체를 대표해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55년 5월 23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언론 정신에서 출발한 서경대신문은 지난 70년 동안 ‘사실 보도’와 ‘정론직필’이라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오며, 서경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대학의 발전을 기록하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우리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서경대신문의 발자취는 그 자체로 우리 대학의 자부심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회적 변동과 기술적 전환,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실을 전하고 가

치를 지켜온 서경대신문의 저력과 신념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깨어 있는 비판의식과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품은 학생기자들과 지도 교수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언론의 형식과 전달 방식을 바꾸고 있고, 대학 언론 역시 이에 부응하는 혁신적 사고와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경대신문이 창간 70주년을 맞아 종이신문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로 나아가며, 영상, 카드뉴스, SNS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의 멀티채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독자와 더욱 가까이 소통하길 기대합니다.

합과 창의 기반의 교육 혁신, 산학협력 강화와 국제화를 향한 서경대학교의 담대한 비전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서경대신문이 진정성 있는 보도와 건강한 담론의 장을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더불어, 구성원의 다양성과 존엄성, 사회적 책임을 담은 따뜻한 저널리즘으로 대학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지난 70년의 빛나는 전통 위에, 새로운 서경대신문의 70+년 미래가 더욱 찬란히 빛나길 응원하며, 그 중심에서 열정을 쏟고 있는 모든 서경대신문사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실용교육을 통한 현장 중심 인재 양성, 응

## 제53대 한빛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최창조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53대 한빛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국제비즈니스어학부 노여전공 20학번 최창조입니다. 발로 뛰는 서경대 유일의 지성 언론인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입생 때부터 서경대학교 신문을 매일 정독하는 애독자 중 한 명으로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서경대학교 신문에 저의 축하를 적을 수 있음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대동체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이 시점, 저는 과거를 회상하며 축제와 열기를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열심히 취재하던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학생기자님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축제를 즐기던 그 현장에서 그들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70년의 역사 동안 발간된 서경대학교 신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책임을 다하는 기자들의 노력과 땀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 우리는 현재 장문의 글보다 카드뉴스, 영상물들이 더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서경대학교 신문사는 초심을 지키며 종이신문의 형식 그대로 신문을 꾸준히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열렬한 애독자가 되어줄 차례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들부터 가볍게 읽기 좋은 이야기까지 때때로 꼭꼭 읽고 신성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들을 전달하며 많은 학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함께 더 발전하는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 신문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제53대 한빛 총학생회 정책기획국장 윤의찬



안녕하십니까, 제53대 한빛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권한대행 및 정책기획국장 전자공학과 20학번 윤의찬입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신문사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시대의 변화와 발전을 지켜보고 기록해 온 자랑스러운 지성인들의 모임이라 생각합니다.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도 언제나 진실과 공정함, 사회적 책임이란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기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 또한, 신문이 들려주는 다양한 목소리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 급변하는 시대 속 신문이 보여준 혁신과 적응력, 초심을 잃지 않는 꾸준함을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신문이 전해주는 한 줄 한 줄의 기사 속에는 기자님들의 고민과 사명감, 그리고 독자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음을 느낍니다.

신문사 기자분들이 발간한 신문을 읽으며 사회에 관한 관심과 책임감을 키웠고, 더 나아가 미래에 사회를 이끌 한 사람으로서가 되어야 할 자세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신문이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 진실을 밝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이념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사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회의 소중한 기록자이자 미래를 여는 길잡이로서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역시 신문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신문사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신문사가 늘 우리 곁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35대 찬란 인문대 정학생회장 구진모



‘찬란한 인문, 함께 더 밝게’ 안녕하십니까, 제35대 찬란 인문과학대 정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23학번 구진모입니다.

축사에 앞서,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70주년이라는 뜻깊은 순간에 축하를 전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매 행사마다 시작과 끝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주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창간 70주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0년간 서경대 신문사는 교내 유일 언론기관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빠르게 학우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단순히 학교 소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전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언론은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중립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을 전하는 서경대 신문사는 언론기관이 지녀야 할 순기능을 훌륭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학생 자치단체의 일원으로서 ‘언론’의 중요성과 책임을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있으며, 서경대 신문사를 응원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하를 읽고 계시는 학우 여러분께서도 그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변함없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우리 학교의 지성을 이끄는 언론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서경대 신문사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7대 찬란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임정인



“빛나는 순간, 함께여서 찬란한 우리”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27대 찬란 사회과학대 정학생회장 경영학부 22학번 임정인입니다. 먼저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언론의 역할과 책무를 묵묵히 다해왔습니다. 학내 소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며 대학 언론으로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주셨기에, 모든 학생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지 않고 언제나 서경대학교를 빛내주신 70년 역사를 지닌 신문에 존경을 표합니다. 더불어, 교내의 행사마다 항상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취재하시는 편집장님, 부편집장님들 비롯한 모든 신문사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변함없는 사명감과 열정으로 학내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또한 늘 신문사의 걸음에 함께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도 신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앞날이 더욱 빛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34대 백야무적 이공대 정학생회장 이호준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34대 백야무적이공대 정학생회장, 전자공학과 20학번 이호준입니다.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학 이후 교내에서 활동하며, 저는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보여준 꾸준한 열정과 책임감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주시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학우들과 학교 사이의 소통을 이끌어오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문사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학교의 변화와 성장을 함께 공유하고, 더 나은 서경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의미 있는 기록 하나하나가 서경대학교의 자랑이자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학내 여러 부서와 단과대학에서 활발한 행사가 이어졌고, 그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해 주신 기자님들 덕분에 많은 학우들이 학교생활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현장을 지키며 학생들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담아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성과 책임을 갖춘 언론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우리 대학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제27대 통합청춘 예술대 정학생회장 노혜림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제27대 통합청춘예술대 정학생회장 노혜림입니다.

예술대를 대표하여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실감 나지 않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계절과 열골,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잠시 상상해 보게 됩니다. ‘발로 뛰는 지성 언론’이라는 슬로건처럼, 본교의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고, 때로는 조용히 누군가의 마음을 담아내며 우리 곁을 지켜온 서경대학교 신문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늘 가까이 있었기에 쉽게 지나쳤을지도 모르지만, 그 존재는 늘 묵묵히, 그러나 분명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나칠 수 있었던 학교 행사들을 비롯해 우리가 놓친 수많은 뜻깊은 순간을 기록해 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문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본교의 일상과 생각, 변화의 흐름까지도 기록해 왔습니다. 소중한 순간들을 매달 신문에 써 내려가며 공동체의 기억을 쌓아온 그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쩌면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이렇게 꾸준한 ‘기록’ 해 온 신문사의 존재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창간 7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창간 70주년을 가능하게 한 편집장님, 부편집장님들 비롯하여 많은 정기자, 수습기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술대는 신문사의 발전과 성장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대 하나 미래융합대 정학생회장 신윤아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1대 하나 미래융합대 정학생회장 경영학부 23학번 신윤아입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우리 대학의 소식을 전하고, 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아온 신문사에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70년의 발자취는 수많은 분의 땀과 열정,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없이 고민하고, 발로 뛰며 소식을 모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간 편집장님과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찬사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대학 신문은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학우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소통의 창입니다. 또한 때로는 대학 사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비판과 현실적인 의견을 담아내는 지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신문사가 우리 대학의 눈과 귀, 그리고 지혜로운 입이 되, 학우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과 변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41대 바름 총동아리연합회 정학생회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제41대 바름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경영학부 21학번 김승준입니다. 총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해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내기 때부터, 서경대학교 신문을 애독하는 한 명으로서, 창간 70주년 축하를 적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정해진 마감 안에 교정을 거듭하며 하나의 기사를 완성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자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독자들은 더 넓은 시야를 얻습니다. 이는 한 권의 신문을 넘어, 대학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성장하는 귀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이어온 발걸음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대의 목소리를 담아 온 귀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진실과 균형을 지키며 공동체의 눈과 귀가 돼준 신문사 기자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총동아리연합회가 주관하는 동아리 알림제에서도 신문사 기자분들이 보여주시는 열정적인 취재와 보도 덕분에 교내 동아리들의 활동이 더 알려지고, 새내기부터 졸업생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날카로운 시선과 따뜻한 시각으로 사회를 비추고, 다양한 세대와 목소리가 교차하는 열린 공론장을 만들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제 더 큰 도약을 앞둔 지금,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경대신문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영균 (서경대신문 주간)



서경대신문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자랑스런 서경대신문은 1955년 5월 23일 학생 신문으로 창간한 이래 발전과 도약을 거듭해 온 서경대학교의 눈부신 역사에 발맞추어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서경대신문은 부지런히 발로 뛰며 우리 대학의 논과 귀가 되어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을 생생히 전달해 왔습니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이 자유로이 참여하고 저마다의 목소리

를 낼 수 있는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며 대학 안팎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명쾌한 분석과 적절한 논지를 제시하여 수많은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매체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신문을 비롯한 기성 매체의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시간 정보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이용의 편의성이 개선

되는 등의 장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로 인한 혼란이나 편향된 관점에서 비롯하는 갈등의 증폭과 같은 부작용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서경대신문이 많은 사명이 더욱 막중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라는 언론의 가치를 담아 대학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람직한 대학 언론의 비전을 제시해 온 우리 서경대신문은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여 냉철한 관점과 균형감 있는 자세로 정확한 정보를 취급하고 명철한 저널리즘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신문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편집장 김나연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9대 편집장 이동학과 22학번 김나연입니다. 먼저, 서경대 신문사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590호는 제가 신문사 일원으로서 맞는 세 번째 창간기념호입니다. 또한 편집장으로 70주년이란 신문사의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70주년인 지금, 이 자리에 멈춰 서서 돌아볼 때 생명이 보이는 건 그동안 치열하게 신문을 발행해 오신 선임 기자들의 발자국입니다. 10년, 20년을 넘어 몇십 년 후 서경대신문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 제가 남긴 흔적도 그렇게 남아있길 감히 소망해 봅니다. 신문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슬픈 세상입니다. 순수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진 학생기자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자로서의 사명감은 온데간데없고 힘들다며 나에게 일을 미루고 쉽게 나가거나, 인공지능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하는 사람들만 넘쳐납니다. 도덕은 이미 불멸적인 존재가 된 지 오래고,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이기심만 가득합니다. 나눔과 친절, 배려의 가치는 퇴색했으며, 기사엔 혐오와 차별로 일어난 일들이 즐비합니다. 그저 씩씩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신문의 근간이 되는 독자의 관심도 줄어들며 대학언론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 신문이 하나둘 폐간되는 상황 속 우여곡절은 많았으나 서경대 신문사가 무사히 7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앞으로도 서경대신문과 함께하며 관심과 참여라는 발자국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늘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는 기자는 여전히 있으니까요. 본지도 독자 여러분 곁에서 항상 발맞춰 걸으며, 신속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행을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과 편집 실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 신문의 창간 70주년을 축하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부편집장 김민채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69대 부편집장 금융정보공학과 24학번 김민채입니다. 먼저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경대 신문사의 일원으로서 이 뜻깊은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동시에 한 자리를 지키며 70년의 세월을 이어왔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경외심이 듭니다. 신문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전통을 지켜내며, 글이라는 도구로 정보와 진실을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문장의 힘을 배웠고, 취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훌륭한 기자 분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처음 기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던 기사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겪으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치열한 노력 끝에 기사 한 편이 세상에 나올 때의 뿌듯함을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들이 제 삶의 밑거름이 되고, 성장한 제 모습을 마주할 때면 힘들었던 기억은 자연스럽게 잊혀진 듯합니다. 선배님들과 신문사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이전 기자님들께서 지금의 신문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뜻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해 글을 쓰고 현장을 누비며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부장 김나연



안녕하세요, 서경대 신문사 사회부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일러 전공 23학번 김나연입니다. 서경대 신문사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년 전, 선배들과 창간호 특집을 위해 창고를 뒤지고 빛바랜 신문들을 보며 대선배들의 열정에 감명받았던 게 엇그제 같아요. 이제는 저와 편집장님이 신문사 내에서 제일 선배가 되었네요. 아직도 전 편집장님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 어린 마음이 들다가도 이젠 저와 함께하는 수습기자들을 보면 다시 굳건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축사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문 발행에 도움 주시는 분들이 생각납니다.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늘 기꺼이 인터뷰와 축사에 응해주시는 총학생회와 중운위분들. 우리 신문사를 보살펴 주셨던 전 주간 교수 방미영 교수님, 신임 주간 교수로 임명되신 한영균 교수님. 여전히 고민을 들어주는 전 신문사 기자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70기 수습기자들과 부편집장님. 마지막으로 소중한 동기이자 친구, 늘 함께 머리를 맞대며 신문사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랑스런 김나연 편집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신문사 창간 70주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꿋꿋이 걸어온 이 길은 수많은 선배 기자들의 열정과 책임감으로 쌓아 올린 귀중한 역사입니다. 제가 3년째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던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서경대 신문사가 지금처럼 단단한 공동체로 오래도록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또한 그 중심에서, 시대의 흐름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기록하는 기자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기자 최소정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22학번 이동학과 최소정입니다. 신문사 창간 70주년이라는 뜻깊은 순간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졸업을 앞둔 4학년으로 처음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참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70기 수습기자 동기들과 함께 기사를 쓰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제69대 김나연 편집장님과 김민채 부편집장님 덕분에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단순히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 전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경험을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경대 신문사가 걸어온 길을 떠올리면, 그 오랜 흐름 속 한 장면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뜻깊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서경대 신문사가 계속해서 우리 학교의 기록을 남기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서경대 신문사의 수습기자로서 남을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기자 김규민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광고홍보영상학과 25학번 김규민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수습기자로서 축사를 작성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신문사에 들어와 보니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작업이 있었습니다. 고생하시는 편집장님과 부편집장님, 사회부장님을 보면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는 어떤 기사를 실을지 고민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에는 유독 책임감을 느낍니다. 학우들에게 도움 되는, 가치 있는 기사를 작성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아이디어 회의와 기사 작성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제 이름이 적힌 신문이 발행되는 것을 보면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다시 또 나옵니다. 신문사실에서 과거에 발행된 종이 신문들을 보았습니다. 신문 1면에 적힌 '국제대학보', '서경대학보'를 보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것이 신문사실이구나, '신문의 가치는 이런 거구나' 같은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색이 바랜 신문에 적힌 기사들은 그때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신문은 점점 잊혀가는 존재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학교도 종이 신문이 더 이상 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문들을 보니 아쉬운 마음이 커질 뿐입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있기에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큰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함께 종이 신문이 발행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 수습기자 김호성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 125학번 김호성입니다. 축사에 앞서, 서경대학교 신문사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다소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역 후 일상은 하루하루가 소중함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신문사의 일원이 되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이 순간이 제게는 큰 감사이자 보람입니다. 신문사는 교내 유일 언론 기관입니다.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글 하나하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매번 고민합니다. 때로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감은 기자의 숙명으로서 이겨내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팬이 없다면 선수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신문사도 독자가 있기에 존재합니다. 언제나 독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로 뛰어 헌신하겠습니다. 시간은 유동적으로 흐르며, 이 흐름 속 세상은 많은 것이 바뀝니다. 하지만 70년 동안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정보와 진실 어린 목소리를 전한 것은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자랑스런 전통의 일부가 되어 진실한 목소리를 전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경대학교 신문사가 시대를 반영하고 선도하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기자 송정아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 25학번 송정아입니다. 먼저 언론의 책임과 사명으로 긴 시간 동안 달려온 서경대 신문사의 뜻깊은 창간 70주년에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저는 누군가 제 글을 읽어주길 바랐고, 자연스럽게 신문이란 매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처음에 '신문은 제게 진중하고, 무거운 느낌이라 제가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치, 경제 등 중요한 얘기지만, 어쩔지 저와는 거리가 있는 세상의 얘기 같았을까요? 그러나 막상 신문사 활동을 시작하고 보니, 신문의 내용은 훨씬 더 다양했고, 따뜻한 얘기들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글을 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신문이 꼭 딱딱한 글만을 담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신문 한 호를 발행할 때,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신문사 선배님들과 동기들의 열정을 마주하며 자극받고,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저 역시 조금씩 성장해 나감을 느낍니다. 늘 한발 앞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선배님들과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웃어주는 동기들 덕분에 항상 즐겁게 신문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종이 신문이 아닌 디지털 시대에 손끝으로 정보를 훑는 게 익숙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신문의 힘을 믿습니다. 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금 우리의 시선과 감정을 담아 시대를 기억하게 하는 매체입니다. 서경대 신문사의 기자로서 지금 이 시대의 증인이 될 수 있던 사실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창간 70주년을 축하합니다.

## 수습기자 심화평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25학번 심화평입니다. 먼저,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서 깊은 신문사의 역사적인 순간에 축사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디어에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입학식 당시, 편집장님과 사회부장님께서 현장을 누비며 사진을 촬영하시던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순간부터 신문사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었습니다. 직접 들어와 보니, 취재와 기사 작성은 물론 회의와 기획, 편집에 이르기까지 신문사의 일은 생각보다 더 넓고 깊었습니다. 매달 회의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지 고민하고, 기사를 쓰며 '어떻게 하면 학우들에게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합니다. 특히 대응제를 취재하면서 선배 기자님들의 노고와 진정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 안에서 기자로서 자부심도 함께 배웠습니다. 제가 맡은 기사가 최종 자면에 실렸을 때 느끼는 뿌듯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직 매우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하며 서경대학교 신문사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서경대신문은 앞으로도 정치, 사회, 경제, 문화는 물론 교내의 다양한 이슈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신뢰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기자 유승윤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 125학번 유승윤입니다. 가장 먼저 서경대 신문사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70년 역사의 한순간을 저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할 따름입니다. 수습기자로 활동하게 된 지 아직 몇 달 지나지 않았지만, 신문사 활동은 저에게 벌써 많은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열정적인 아이디어 회의와 고민이 녹아 있는 수정 작업, 한 칸을 위한 무수한 사진 촬영과 색다른 인터뷰 등 다양한 경험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은 분명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떠나간 친구들과 새로운 얼굴들, 눈앞에 놓인 무수한 선택지들은 많은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그 고민이 모두 고맙게 느껴집니다. 제가 주저했던 순간들이 분명 신문사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편집장님과 부편집장님, 사회부장님과 70기 동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언제나 화목한 신문사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사를 쓰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재미있게 다가옵니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고 여러분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 수습기자 전세찬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70기 수습기자 미래융합학부 125학번 전세찬입니다. 축사에 앞서, 서경대 신문사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입학 전, 저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자가 되기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입학식 당시 편집장님의 신문사 홍보 말씀과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하시는 모습이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신문사가 제 꿈을 펼칠 출발점이란 판단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뽑아주신 편집장님, 부편집장님, 사회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합니다. 기자 활동을 하며 기사 작성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누군가가 일을 글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기사 작성에서 서툰 점이 많았지만, 선배님들의 도움 덕분에 첫 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학 언론은 현대사의 주요 순간마다 목소리를 내며, 사회를 움직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경대 신문사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학우들과 함께 소통하며 교내 민주주의를 이끌어왔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수습기자 정소영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기 수습기자 광고홍보영상학과 25학번 정소영입니다. 먼저 서경대 신문사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70기 수습기자로서 신문사에 들어와 신문사 창간 70주년을 축하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처음 신문사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기사 한 줄을 쓰기까지 머리를 싸매고, 문장 하나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말을 걸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고, 쓴 기사를 다시 읽으며 스스로 부족함을 확인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모여,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배운 건 글쓰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법,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기자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무게였고,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신문사는 글을 통해 세상을 읽고, 동시에 세상에 말을 거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질문하는 법을 배웠고, 동료 기자들의 노력 속에서 자극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기사를 읽어 주시는 독자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단단한 기자가 되어, 더 좋은 기사를 독자 여러분께 전하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나아가겠습니다. '발로 뛰는 지성 언론'이라는 말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취재 현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학교 신문사 창간 70주년을 축하합니다.

# 서경대신문 창간 70주년을 축하하는 독자 목소리

## # 명지대학교 명대신문 서성운 편집장

서경대신문의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발로 뛰는 언론 서경대신문이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 고아름 편집장

서경대신문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캠퍼스의 숨결을 담고 시대의 맥박을 짚어온 그 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심히 지나가던 한 줄 기사에도, 대학 사회의 진실을 향한 욕심이 깃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서경대신문의 70년, 그 무게 있는 발자국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실과 중재를 향한 글, 기사를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손은 여전히 떨립니다. 그 떨림을 견뎌낸 70년은 곧 이 신문이 결코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시절에는 당당히 할 말 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 어떤 때에는 어두운 진실을 붙잡느라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이란 본디 그런 고요한 테서 힘을 다지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서경대신문이 지켜온 굳건함과 성실함에 존경을 보냅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 후에도 여전히 예리한 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학과 사회를 바라봐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경대신문의 70주년을 축하합니다.

## # 동덕여자대학교 동덕여대학보 이다현 편집장

서경대신문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0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 기쁩니다. 서경대신문은 70년간 학생들의 목소리를 발 빠르게 취재해 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서경대신문은 대학 언론이라면 맞이하는 학내 구성원 관심 저조, 인력난 등의 위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위기는 계속해서 대학 언론을 위협하겠죠. 그러나 학우들과 함께하는 서경대신문은 앞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굳건히 버틸 것입니다. 같은 대학 언론사로서 서경대신문이 순항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10년도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서경대신문을 응원합니다.

## # 서강대학교 서강학보 이재연 편집국장

서경대신문의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 학보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 # 덕성여자대학교 덕성여대신문 윤수아 편집장

서경대신문의 70주년을 축하합니다! 반 백년을 넘기기도 쉽지 않은데, 어느새 일흔을 맞이하다니. 비록 타 대학 편집장이지만 매우 뿌듯합니다. 서경대신문이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기자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굳건한 대학언론으로 자리 잡길 바라며,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응원해요!

##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학보사 백지민 편집장

서경대신문의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70년 동안 서경대학교를 전하고 기록해 온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학생의 가교로서 더 큰 도약이루시길 바랍니다. 항상 빛나는 언론의 길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 건국대학교 건대신문 박호빈 편집국장

서경대신문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55년 창간 이래, 서경대신문은 대학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대의 흐름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언론의 사명과 역할을 곳곳이 이어왔습니다. 때로는 날선 비판으로, 때로는 따뜻한 시선으로 지면을 채워온 서경대신문의 기록은 곧 서경대학교 공동체의 성장기이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청년세대의 발자취입니다. 대학언론이 처한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론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로 뛰는 서경대신문의 모습은 저희 건대신문에게도 큰 자극이자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도 서경대신문이 진실에 귀 기울이는 정직한 언론, 대학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건강한 비판자, 그리고 구성원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기록자로서 오래도록 빛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학보 김서린 편집장

서경대신문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보사'라는 단어는 참 많은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학보사 기자들은 학보와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더 좋은 기사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발로 뛰고 늘 고민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서경대신문 역시 70주년에 이르기까지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학 언론이 그렇듯 부족한 기자수와 지원, 독자의 무관심 등 여러 위기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로서 바라본 서경대신문은 "발로 뛰는 지성 언론"이라는 구호 아래 묵묵히 필요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해왔습니다. 그 노력을 알기에, 서경대신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서경대신문이 나아갈 여정을 응원하며, 성공회대학보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70주년 축하드립니다.

## # 홍익대학교 홍대신문 정채원 편집국장

서경대신문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경대학교의 유일무이한 교내 언론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시대의 흐름을 꾸준히 기록해 온 70년 간의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 발간을 이어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서경대신문 기자 여러분의 열정과 책임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경대신문이 대학언론으로서 명맥을 이어가며, 의미있는 발걸음을 이어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창간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서경대신문 70주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홍익인간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대학신문을 선도해온 서경대신문사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타학과 학생이지만 기사 하나를 위한 기자분들의 강한 열정이 느껴져서 서경대신문이 인상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응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소리쳐라

작년까지 함께했던 신문사 부원으로서, 언제나 열과 성을 다해 발로 뛰는 기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러나고 있지만, 먼 훗날 다시 돌아보면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순간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산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경대신문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0년도였나요, 학생회비 횡령 사건 취재 기사가 인상깊었습니다. 앞으로도 교내의 소식을 이모저모 전해주는 멋진 신문사가 되기를.

창간 70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서경대를 빛내주길 바랍니다.

창간 70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의 역사까지 써내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서경대신문의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0주년 레스고!!

창간 70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세요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학생사회를 위한 멋진 글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서경대신문의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발로 뛰는 지성 언론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행보를 그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있기에 학생이 있고 학생이 있기에 언론이 있습니다. 교내 유일 언론 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더 당차게 발로 뛰기를 바랍니다. - 기자 출신 졸업생 -

북악관이 어디인지, 학식은 어디서 먹는지도 모르던 새내기 시절에 만난 2023학년도 개강호 신문을 기억합니다. 모르는 것투성이에, 아는 선배 하나 없던 제게 서경대신문은 어쩌면 저의 첫 대학 친구이자 신배였네요.

어설퍼던 첫 학기를 지나고 그해 가을에는 서경대 신문사 수습 부원으로, 그다음 해에는 정기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경대신문의 객원기자이자, 열혈 독자가 되었네요.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서경대신문과 신문사 구성원들께 많이 신세 지고, 또 배웠습니다. 애정이 컸던 만큼 고단함도 많았지만 이제 와보니 즐겁고 보람찼던 기억뿐입니다.

앞으로도 서경대신문이 학교의 발전을 기록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리로 기능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박동하는 우리 대학의 지성 언론 1번지이길 소망합니다.

서경대신문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끝맺습니다. 100주년을 맞는 그날까지, 서경대신문 파이팅!

학교를 더 학교처럼 만들어주는 서경대 신문,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소식 전해주는 신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0주년 축하드립니다.



# 전화보다 문자, 즉답보다 '타이밍' 이 중요한 시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전화를 피하거나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문자나 메신저처럼 여유를 두고 답할 수 있는 소통 방식에 익숙한 이들은 실시간 반응을 요구하는 전화 통화를 부담스럽게 여긴다. 이런 현상은 '콜포비아'라고 불리며, 전화 통화에 대해 불안과 긴장, 심리

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난 2023년, 아르바이트 포털 '일바천국'이 MZ세대 1,4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6%가 자신이 '콜포비아'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2022년

에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29.9%)에 비해 5.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전화 통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인 64.0%는 전화를 받기 전부터 긴장하거나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47.8%는 통화 중

과거 대화 내용을 걱정하거나 앞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고민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5명 중 1명꼴인 22.0%는 통화 도중 심장이 빨리 뛰거나 식은땀이 나는 등의 신체적 반응까지 경험한다고 밝혔다.

콜포비아는 단순한 전화 기피를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필수적인 통화 상황에서도 불안과 긴장을 겪으며, 통화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담은 비대면 소통 확산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접적인 대화가 줄어들면서 소통 단절이나 오해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필수적인 통화 상황에서 불안과 긴장을 겪으며, 통화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담은 비대면 소통 확산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접적인 대화가 줄어들면서 소통 단절이나 오해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 소통 방식의 변화가 만든 새로운 불안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과거에 배달책을 보고 직접 전화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친구 집에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던 모습은 이제 배달앱이나 메신저로 대체됐다. 시대가 변하듯, 젊은 세대에 이제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전화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소통 방식인 문자, 이메일 등을 선호한다. '콜포비아'는 2013년 처음 '전화 공포증'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졌고, 2016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문자나 메신저 같은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등장한 이 용어는 '전화'와 '공포증'이 합쳐진 말로, 전화 통화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단순한 전화 기피를 넘어서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포함한다.

콜포비아는 통화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전화를 받기 전, 벨소리를 듣기만 해도 긴

장과 두려움을 경험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땀이 나는 등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매체인 전화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대화 흐름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감정이 심해지면 통화를 피하려는 욕구로 이어진다. 이러한 '통제할 수 없는 대화'는 심리적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며, 통화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게 한다.

콜포비아 증상으로는 식은땀, 메스꺼움, 숨 가쁨, 손발 저림 등의 신체적 반응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단순 전화 기피를 넘어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불편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결국 콜포비아는 통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부담,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는 기존의 대면 소통보다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의 소통에 익숙하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일상적인 연락은 대부분이 메시지로 이뤄지며, 직장에서는 업무 지시나 회의 일정도 이메일로 공유되고, 굳이 전화 대신 간단한 메시지로 확인과 응답이 오가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학교 역시 강의나 과제 공지, 교수와의 소통이 대면보다 메일이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전화 대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천천히 답할 수 있는 비대면 소통 방식이 일상이 된 것이다.

더불어 팬데믹 이후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과 원격 수업이 일상이 됐고, 직장에서도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등 비대면 소통이 더욱 보편화됐다. 이러한 환경은 전화 통화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들면 만큼 대면 대화나 전화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콜포비아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일상 속 어려움을 마주하는 콜포비아



출처 : 오은영 금쪽 상담소

'콜포비아', 즉 전화에 대한 불안은 이제 단순한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직접 겪은 서경대학교 재학생 A씨를 만나봤다. 그는 교내 장학금 관련 문의를 위해 정학관에 전화를 걸어야 했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직접 전화해야 했는데, 막상 신호음이 들리니 말이 막히더라고요. 평소에는 전화를 걸기 전에 대본을 작성하기도 해요. 질문을 제대로 못 하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걱정돼서요." 과거 A씨는 친구에게 대신 전화를 부탁하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단순한 정보 확인조차 전화가 필요하면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이는 자율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교나 공공기관처럼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응

대하는 곳'에서 전화를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은 점점 늘고 있다. 학교 행정 업무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콜포비아는 갈등을 일으킨다. 배달 전문 음식점에서 일하는 B씨는 "앱 주문이 잘못 들어오거나 주소가 이상할 때 직접 손님한테 전화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제일 싫어요. 낯선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혹시 언성이 높아질까 봐 더 긴장돼요."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B씨는 전화를 마무리 다 결국 매니저에게 혼이 난 적도 있었다.

이처럼 즉흥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화를 회피하려는 성향은 직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동료들과의 소통에도 마찰을 낳는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세대 간의 인식 차이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기성세대는 여전히 '전화하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통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Z세대는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더 큰 스트레스'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왜 전화도 못 하나?"는 핀잔과 "왜 이해하려 들지 않느냐"는 불만이 교차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사회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콜포비아가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면접 중 간단한 상황극을 통해 전화 응대 능력을 테스트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고,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중 외부 업체와 통화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마다 전화에 대한 두려움이 실수로 이어지고, 이는 능력과 무관하게 낮은 평가를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콜포비아는 단지 '전화를 싫어한다'는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라며, 텍스트 기반의 소통에 익숙해진 세대가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전화가 당연했던 시대에서, 기록이 남고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텍스트 기반 소통으로 옮겨간 현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전화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적응을 강요하고 차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방식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첫걸음... '콜포비아' 극복하기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비대면이 익숙해진 시대, 소통의 단절과 의사소통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텍스트로 소통하는 것이 편해지고, "통화할 때 실수하면 어찌지?"와 같은 두려움은 '콜포비아(Call-phobia)'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이제는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기업과 기관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다.

조직은 구성원 간의 협동심과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호회 결성이나 레크레이션 활동, 팀 내 회의 방식 개선 등은 구성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한 영국 금융기업은 Z세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통화 교육'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로, 전화 통화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도전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과 같은 교육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CEO 제임스 길버는 "우리 회사는 Z세대 신입사원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기대하며 통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제 업무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통화 상황을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교육은 콜포비아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비난보다는 따뜻한 격려가 콜포비아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기업과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개인의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화

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전화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실수가 두렵다면 전화를 받을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고, 여의치 않다면 상대방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편한 시간에 다시 통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화는 문자보다 목소리 톤이나 발음 등 신경 쓸 요소가 많지만, 이를 단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목소리를 주고받음으로써 형성되는 신뢰와 인간적 연결의 장점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복잡한 사안을 설명하거나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전화가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통화 기술과 자신감을 쌓는다면 콜포비아 같은 현상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비대면 소통 수단이 날이 발전해가는 현 시점에서, 콜포비아는 이제 한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소통 방식의 일환이며, 사회와 삶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됐고, 더 이상 개인의 적응 부족 문제로 치부하고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세대 간 갈등으로 변질 수 있는 이 문제는 상호 이해와 배려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젊은 세대는 콜포

비아를 단순히 수용하기보다, 이를 극복하며 세상과의 소통을 넓히려 노력해야 한다. 이는 자기 계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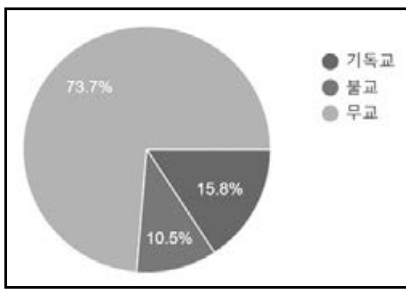
전화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우선 가족이나 친구 등 본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과 전화하며 벨소리에 놀라는 빈도를 줄이고 타인과 통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즉각적 반응이 어려운 것이니 대면 접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는 "모든 공포증이 그렇듯 힘 있고 두렵더라도 가까운 사람들부터 대화의 횟수를 늘려 가는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40~50세대는 젊은 층의 소통 방식과 감수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소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회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젊은 세대와 종교 - 줄어든 신앙심 속에서도 여전한 문화적 영향



종교는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며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는 사람들, 틈날 때마다 절을 찾는 이들, 새해가 되면 기도하러 가는 모습 등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 '크리스마스', '부처님오신날'과 같은 종교적 기념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종교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종교는 개인의 가치관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중시하며,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주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3.7%가 무교라고 답했다. 이어 15.8%는 기독교, 10.5%는 불교라고 응답했다. 이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종교적 의존도가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종교는 더 이상 '삶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여전히 일부 청년에게는 정서적 위안과 삶의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한 종교는 기독교다. 최소 26억 명 이상의 신자를 가진 기독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체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해 왔다. 실제로 기독교계 학교나 병원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공동체 의식과 도덕적 가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역시 기독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다.

불교 역시 조용하지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템플스테이, 명상 등은 종교적 수행을 넘어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힐링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팔자 또한 시간이 날 때 산사(山寺)를 찾아 마음의 여유를 얻곤 한다. 많은 외국인도 이 한국 전통문화로 인식을 하고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불교가 단순한 신앙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가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선 조사처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종교가 한국 사회에 남긴 문화적·정신적 자산은 여전히 유효하다.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종교는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공간이며, 공동체와 문화를 연결하는 소중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듣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

일요일 오전 8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았다. 약 100명의 신도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예배 시작 전 찬양을 한 후, 목사의 설교가 이어진다. 이후 조용한 곳에서 성경 묵상을 하는 QTT(Quiet Time)가 있어 서로 근황을 묻고 말씀을 두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또한 함께 식사하며 교류를 이어 나간다. 이처럼 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기자는 현재 교회학교 교사로서 섬기고 있는 49세 어린이집 교사 A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교회에 다니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A.** 저는 전남 곡성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컸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군것질거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시골 마을에 교회 예배당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성경학교라는 거를 한다고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맛있는 슈크림 빵을 주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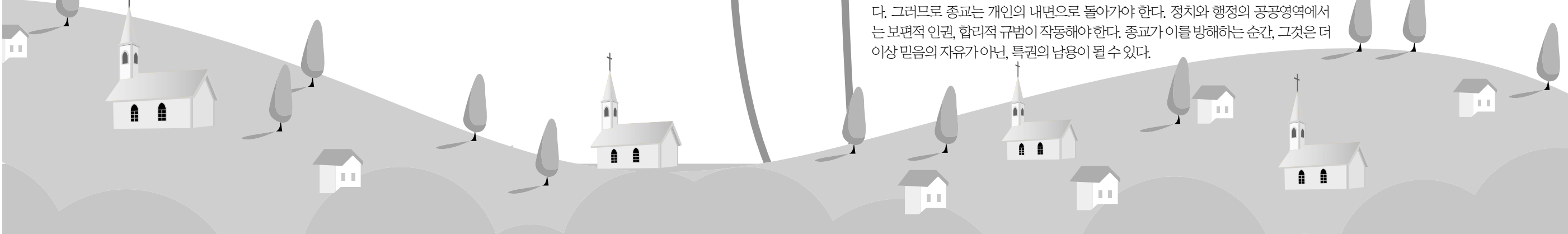


**Q. 주일 예배나 교회 활동이 본인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A.** 교회에서 다년간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를 했어요. 아이들을 섬기는 활동을 하면서 봉사가 뭔지 깨닫게 되었고 큰 보람이 됐던 거 같아요. 유치부 봉사를 하면서 앞으로 어린이집 선생님이 돼야겠다는 꿈을 키웠고 실제로 어린이집 교사가 됐어요.

**Q.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A.** 기독교의 정신 중 먼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이 아이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의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교회학교는 꼭 있어야 한다고 봐요.

**Q.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변화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요즘 사회는 나밖에 모르는 세상인 것 같아요. 기독교 정신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봉사하고 나눔을 행하는 것이에요.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Q. 요즘 교회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이단, 정통 기독교가 아닌 이단 성향의 교회들이 많아요. 정치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이단 교회는 경계할 필요가 있고 전통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종교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통 교회와 이단 교회를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십자가와 연꽃, 공존의 한국 속으로

종교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 삶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로 정의된다. 이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에 관한 질문과 삶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위로를 얻고, 성찰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종교는 개인의 신념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중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49%다. 이 중 개신교가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교 16%, 가톨릭 11%가 뒤를 잇는다. 이 세 종교만 해도 한국 사회 종교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종교는 때때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와 파키스탄을 들 수 있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할 독립한 두 나라는 각각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종교 갈등이 본격화했고, 지금까지도 심각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는 개인에게는 희망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통해 어떤 삶의 가치를 실현하려 하고 있을까?

이번 현장르포에서는 기독교인과 불교인을 직접 만나 종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각 종교의 특징과 신앙의 방식, 종교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종교 간의 이해와 공존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종교가 갈등이 아닌 대화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는 하루... 불자를 만나다

신문사 취재부가 아버지가 스님인 불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불자 인터뷰] - 김진영, 30세**

**Q. 아버지가 스님이라는 점이 일상이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A.** 아버지의 직업이 스님이라는 사실을 주변에 쉽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스님이 경우가 흔치 않다 보니, 친구들과 가족 이야기를 나눌 때도 조심스러웠고, 남들과는 다른 환경이라는 점 때문에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집이 절이었던 만큼 일반 가정과는 다른 규칙과 생활 방식 속에서 자랐습니다. 절에 들어갈 때 맨발을 보이면 안 되고, 길에서 스님을 마주치면 반드시 합장해 인사 드려야 한다는 등의 예절은 어릴 때부터 철저히 배웠습니다. 이런 규율과 환경은 자연스럽게 제 행동에 절제와 예의를 갖추도록 영향을 미쳤고,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깊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Q. 절과 관련된 행사나 의식에 자주 참여하지. 또한 기억에 남는 장면은.** **A.** 부처님오신날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해 왔고, 명절에도 절에서 열리는 제사나 행사가 있으면 참석합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면 며칠 전부터 불자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음식 준비도 단순한 상차림이 아니라 절에서 격식을 갖추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빨간날인데 못 쉬네' 하고 투정도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린 시절 부처님오신날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엄불하시고 밭(절을 올리는 동작)을 하시면 장면입니다. 두 분이 함께 밭당에 앉아 정성을 다해 불경을 읊으시던 모습은, 아직도 참 경건하고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Q. 절에는 어떤 날에 방문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A.** 저희는 태고종 소속으로, 스님도 결혼이 가능한 종파입니다. 그렇다 보니 절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집처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에게는 가족을 보러 가는 편안한 방문 같은 의미가 큼니다. 주지 스님이셨던 할아버지의 위패에 절을 드리거나, 부처님께 조용히 인사를 올리는 정도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불교가 삶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A.**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내 욕심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그 욕심이 타인에게도 같은 것을 기대하게 만들며 결국 또 다른 괴로움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제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게 해줍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고, 결국 스스로를 더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제 삶에서 불교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 내면을 돌아보는 거울 같은 역할입니다.

**Q. 불교가 한국 사회에 이바지한 부분은.** **A.**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는 조용한 안식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균형을 모아 열정적으로 외치는 종교라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종교입니다. 특히 자연과 어우러진 사찰 문화나 차분한 예절과 명상 같은 방식은 현대인에게 필요한 '멈춤'과 '쉼'을 제공합니다.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된 만큼, 불교의 예절과 가치관은 우리 문화와 정서에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불교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자리를 지키며 정신적 기반이 되어온 존재입니다.

### 한국 종교계의 양면성

우리 사회에서 종교는 언제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서 신에게 손을 내밀면 종교는 위안과 삶의 의미를 제공했지만,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미쳐왔던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불교가 보여준 일련의 행보들은 '신성한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인권과 공공 이익 등이 훼손됐는지 돌아보게 한다. 교단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직적 혐오 표현은 곧 '정치적 무기'가 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 출처: 중부일보

한국갤럽이 전국(제주 제외)의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4월 조사에 따르면, 현재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60%에 달한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40%이며, 이 중에서도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천주교가 6%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종교는 더 이상 '다수의 목소리'로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현실 정치와 사회 담론에서도 기독교와 불교의 문제가 종종 나온다. 종교의 이해관계가 공공정책을 흔들고 심지어 국민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기독교의 차별금지법 반대다.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권 보장을 명시한 이 법안은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가 그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2023년 9월 9일에 열린 퀴어축제 반대 집회에 참여한 기독교단체 소속의 한 남성 회원이 같은 날 열린 인천 퀴어 문화축제 행사를 방해해 체포되기도 했다.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인에게 일명 '문자 테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 중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국회는 일부 종교 집단의 '반대'에 발이 묶여 있다. 정치가 종교를 두려워한 결과이자, 종교가 정치 위에 군림하는 부정적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불교계의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사찰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수사받은 사건이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사찰의 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도 보고됐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불교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하지만 종교의 사회 참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종교는 민주화와 인권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기억은 먼미래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는 개인의 내면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와 행정의 공공영역에서는 보편적 인권, 합리적 규범이 작동해야 한다. 종교가 이를 방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의 자유가 아닌, 특권의 남용이 될 수 있다.

신앙은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고,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기독교와 불교는 오랜 시간 한국 사회의 구성구석에 뿌리내리며 교육, 복지, 공동체 문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커진 만큼,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모습도 드러났다.

부정적인 문제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잘못을 성역 없이 바라보는 용기와 타 종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태도가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하다. 우리는 이제 혐오와 경계가 아닌, 이해와 성찰을 통해 신앙을 다시 바라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렇기에 모든 종교를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종교는 수많은 사람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어려운 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

신념은 다르지만 타인의 믿음을 이해하는 태도는 어느 종교든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다. 신앙은 삶의 무기가 아닌 다리를 놓는 도구여야 한다. 우리가 종교를 논할 때, 비판과

찬사를 모두 품을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 결국 조화로운 사회는 서로 다른 믿음을 품은 이들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종교는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의 고통 앞에서는 같아야 한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기고칼럼



내 직업은 공부다. 교수가 아니고 공부. 왜 그런가? 평생 공부만 할 수 있는 직업이 교수였기에 교수가 됐고, 4년 전에 정년퇴직했지만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50여 년, 공부의 추억을 떠올려본다.

학부 시절의 공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한 공부였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그랬다. 절대평가를 하던 그 당시 우리 대학교의 장학제도는 특별했다. 학과 학년을 통틀어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 이른바 전과 수석인한테는 등록금 면제는 물론 따로 급입봉을 주었다.

졸업할 때까지 그 혜택을 거의 독점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 절실함이다. '궁즉통(窮則通)' 궁 죽하면 통한다는

말은 진리다. 반드시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기에 공부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좋은 성적을 유지했다. 공부만이 아니라 인생관사가 다 그렇지 않을까? 간절히 원하면 이뤄진다.

절실함과 함께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모든 강의 시간마다 맨 앞에 앉아 경청했다. 핸드폰도 없고, 녹음기도 드물었던 시절이라, 강의 내용을 죄다 노트에 필기했다.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1학년 때의 교양영어 시간이 문제였다. 중학교 3년을 만화로 방진해 영어가 약한 나로서 난감했다. 다행히 영어 원문을 읽고 번역해 주는 강의라서, 열심히 받아 적었다. 그때 속기한 영어 노트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 당시 대학의 시험은 주로 논술이었다. 전공은 물론 교양과목도

## 공부의 추억

대부분 그랬다. 충실히 수강해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예상 문제를 만들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시험 준비였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으면, 담당교수를 찾아가 일일이 질문하여 해결했다. 하지만 이런 공부는 학문과는 거리가 멀다. 얼마 전, 서울의 어느 국립대 교수가, A 학점 받는 비결이라며 공개한 것을 보니, 교수의 말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답안지에 옮겨 붙인 것이다. 기막힐 노릇이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다. 그냥 학습에 불과하다. 학습은 AI가 더 잘한다. 창의적인 인간을 위해 학문을 읽고 번역해 주는 강의라서, 열심히 받아 적었다. 그때 속기한 영어 노트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 당시 대학의 시험은 주로 논술이었다. 전공은 물론 교양과목도

이한 이야기를 반복하면 표절이다. 심지어는 내가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되풀이해도 자기표절이다.

대학원 이후의 공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석사과정을 마친 후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일이다. 그 당시 한국학대학원은 공부의 천국이었다. 합격만 하면 수료할 때까지 오로지 공부만 할 수 있는 곳이었다. 등록금 면제에, 전원 기숙사에서 먹고 자게 해 주는 것은 물론, 매월 책을 사 보라고 일정액을 지급했으니, 나처럼 공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지상낙원이었다.

석사과정 지도교수는 가지 말라고 말했으나,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하고 싶었던 게 소원이었던 나는 뿌리치고 입학했다. 1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학과가 폐지돼 다시 원래의 대학원으로 돌아와 박사과

정을 밟고 말았으나,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거기서 들은 석학들의 강의, 전국에서 모여들어 함께 공부한 동료들과의 인맥은 지금까지도 내 학문의 원동력이다.

은퇴한 지 4년째이지만, 내 공부는 현재진행형이다. 자유로워진 시간 덕분에, 미루어 두었던 저서를 출판해 '2024 세종도서' 선정의 영광도 누렸다(《이승과 저승을 소통하는 한글 계문》). 지금은 '우리 옛 사람들의 마지막'이란 책을 집필 중이다. 매월 2회, 고전을 읽고 지인들과 토론하기도 지적인 자극이 대단하다. 공부하는 생활은 과거의 추억도 즐겁거니와 현재도 기쁘다. 열심히 공부한 것을 세상에 나누는 보람,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다. 서경대 구성원 모두가 행복 누리기를!

이복규 (영어교수/국문학)

| 기자의 눈 |

## [ 이등병의 편지 ③ ] 군대에서 악착같이 책을 읽다

주말 1시간씩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훈련소에서, 남는 시간에 나는 줄곧 책을 붙잡고 있었다. 군대를 기회로 삼아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입대 전부터 다짐하던 것이었지만 마상 군대를 가고 나니, 책에 '집착' 하는 수준으로 책을 읽게 되었다. 어떤 연유로 그렇게 책에 푹 빠지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책을 읽는 동안에는 책의 세계에 빠져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나는 짧은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는 시집을 읽는 한편, 기억만 하고 미처 읽지 못했던 유명 작가들의 소설들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훈련소에는 양질의 책들이 군대군데

보물처럼 숨겨져 있었다.

훈련소 기간 동안 조지 오웰의 '1984',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 프랑수아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위화의 '인생', 알랭 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 등 12권의 책을 읽었다.

평소의 일상을 향유하며 이 정도의 책을 읽었다 한다면 그리 놀랍지 않은 양이지만, 훈련소에서는 결코 쉽지 않았다. 안 그래도 뼈뺀 훈련 일정 속에서 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작업을 겸업해야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간 훈련이 있는 날도 많아, 책을 읽을 여유가 원천 차단된 적도 많았다.

어떤 날은 일어나서 다시 잠들 때까지 책을 한 페이지도 읽을 여유가 없던 적도 있었다. 육신이 지쳐 당장이라도 기절할 듯했지만 조금이라도 책을 읽으려고 눈을 비볐다. 소동된 후에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전자시계 라이트에 의존해서까지 책을 읽기도 했다. 동기들은 조금은 광적인 모습에 혀를 내두르곤 했다. 스스로 느끼기에도 악착같이 책을 읽었다는 생각이 든다. 내 안의 어떤 원동력이 내게 이런 악착을 발휘하게 한 걸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것이 모두 제약되고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독서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또한 책을 읽지 않으면

안 그래도 미숙한 글솜씨와 사고력이 퇴보될 것 같다는 무의식적인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다.

훈련소 기간 중 읽은 책 중 가장 심금을 울린 책은 시인 이병철의 '바다는 잘 있습니다'였다. 우연히 마주한 이병철의 시는 담백하고 친근했다. 그가 노래하는 별과 사랑은 꼭 내가 추구하는 것과 맞닿아 있어 마음속 깊은 울림을 끌어내곤 했다. 그의 모든 시를 애정하지만, 특히 인상 깊었던 시들은 어디서든 꺼내 볼 수 있게 간직하고 싶었다. 나는 운동중가 백석의 시집을 필사한 것처럼 이병철의 시를 노트에 필사해 가며 다시금 마음속에 새겼다.

알랭 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도 매우 인상 깊게 본 소설이었다. 알랭 드 보통의 천재적인 통찰력과 문장 구사력에 감탄하고

색다른 은유와 유쾌한 재치에 탄복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기억이 있다. 약관의 나이에 이런 책을 써낸 그의 출중한 재능에 숭배심이 들 정도였다.

군대에서 책을 읽는 동안 책을 이해하는 역량과 나의 것으로 정제해서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확연히 발전해 가는 것을 느꼈다. 녹진해진 감수성도 느껴졌다. 또한 책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상기에 볼 수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작가의 책을 탐독하고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더 넓은 문학의 세계를 자유로이 드나들고 있다는 욕심이 생겼다. 더 많은 책과 함께한 후의 내가 어떻게 변화돼 있을지 궁금하다.

전준혁 객원기자 (nicejackkyhu@naver.com)

| 수습의 눈 |

## [ 전역자의 편지 ] 실패한 청춘, 국방색 보라매로 다시 일어나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시간 낭비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 동안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다.

2023년 7월 10일, 국방부의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다. 교육사로 가는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쳐 갔다. 20살, 나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지리한 모든 대학에 떨어졌고, 임대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 부모님의 사업마저 위태로웠다.

21살, 인고의 노력 끝에 공군에 합격했다.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였다. 교육사에 도착하자, 나는 부모님의 눈물 어린 배웅을 떠올리며 각오를 다졌다. 그렇게 훈련소에 첫발을 내디뎠다. 한 달 내딛는 순간 빨간 모자를 쓴 교관의 소리침에 도망치고 싶었다. 계속 발을 내딛다 생활관에 배정받았고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청년들의 640일 여정이 시작됐다.

06시 기상나팔 소리가 들리자, 지

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을 느꼈다. 일주일의 예비 훈련병 과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취침 무렵 각 생활관에는 성시경의 '희재'가 들려왔고 훈련병들은 눈물을 삼켰다. 훈련소 생활은 문명이 닿지 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병 일과는 다시없을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

훈련소 수료와 함께 2박 3일간의 외박을 삼켰다. 2박 3일은 2,3초 같이 흘러갔고 또다시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바라보며 진주형 열차에 몸을 실었다. 10일간의 특기학교 생활은 순탄했다. 이론 수업만 진행

됐고 2층 침대와 티비가 구비돼 있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자대 배속이 끝나고 본격적인 훈련병 생활이 시작됐다. 군인화 교육이 시작되면 서 군기가 심해졌다. 7월의 진주 날씨는 매우 더웠다. 뜨거운 열기 속 유격 훈련과 각개전투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인터넷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는 사회 이슈는 새로웠고 다른 동기들의 편지를 나눠 읽을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오늘의 책

폭넓은 지식으로 세상과 대화하기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 채사정



▲ 출처 : 예스24

“우리는 왜 세상에 대해 폭넓게 알아야 할까?” 정보의 홍수 시대. 알지만 다양한 지식도 때로는 깊이 있는 전문성만큼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에서 채사정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은 독자에게 꼭 필요한 책으로 주목받는다.

이 책은 2014년 출간 이후 꾸준한 인기를 누리며 현대인 필독서로 자리 잡았다. 팟캐스트 ‘지대넓얏’의 진행자로 알려진 채사정은 다양한 분야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내

는 작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의 특징인 간결하고 직관적인 글쓰기는 독자들에게 지식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편안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복잡한 개념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예시를 들어 흥미를 끌어낸다.

책은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경제, 정치, 역사, 사회, 윤리 등 다양한 테마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각각의 주제는 독립적으로 설명되지만, 하나의 커다란 흐름으로 연결돼 독자에게 통합적 시각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인간을 둘러싼 철학적 질문 등을 일상적인 예시와 쉽고 명료한 언어로 전달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 가지 주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사고를 확장할 기회를 얻는다. 또한, 각 주제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대학생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다양한 학문과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양 수업이나 토론, 면접 등 실제 대학 생활과 사회 진출 과정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책에서 제시하는 다

양한 사례들은 대학 생활 중 이루어지는 발표나 논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더불어 이 책을 통해 습득한 기초적인 지식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도 기여한다. 이 책을 읽으면 다양한 주제를 쉽게 연결하며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 복잡한 현실 문제를 다룰 때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물론 이 책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다루는 범위가 넓기에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얻기에는 어렵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과 이해를 주로 다루기에 목적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원한다면, 추가적인 독서나 전문 서적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대학생들에게 훌륭한 출발점이 되어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준비를 갖추고, 일상적인 대화를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줄 기초를 닦을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지식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현실의 복잡한 문제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오늘의 전시

눈앞에 선 현실, 조각이라는 환상 - Ron Mueck : 론 뮤익



론 뮤익은 1958년 멜버른에서 태어나 1986년부터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조각가다. 30여 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 수는 총 48점에 달한다. 그는 조각의 크기를 비정상적으로 매우 크거나 작게 조정해 표현하는 방식으로 유명하다.

뮤익의 표현 방식은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작품 앞에 멈춰 선 사람들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고, 조각의 세밀함에 감탄하며 발걸음을 멈춘 채 오랜 시간 머문다. 앞줄의 사람들은 거대한 조각상에 눈을 떼지 못하고, 뒷줄의 사람들은 발코니를 들고 기웃거리며 그 전율을 함께 느끼고 싶어

한다. 사람들이 좀처럼 다음 작품으로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론 뮤익의 작품이 깊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필자는 처음에는 설명 없이 작품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 오디오 가이드를 듣지 않은 채 전시를 관람했다. 작품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감정을 따라가다가, 전시를 한 차례 감상한 후야야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다시 전시를 되짚었다. 전문가의 해설은 내가 미처 놓쳤던 감상 포인트를 짚어주었고, 이에 두 번째 관람에서는 훨씬 깊고 풍부한 이해가 가능했다.

뮤익의 예술성은 언어로 쉽게 다 답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경이롭다. 마치 실제 사람을 굳혀 전시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조각은 사실적이며 생생하다. 힘을 주고 있는 신체 부위는 붉게 충혈돼 있고, 남성의 다리 털이나 안쪽으로 밀린 새끼발가락, 거뭇한 턱수염 하나까지 세심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사실성은 종종 관객으로 하여금 소름마져 돋게 만든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작품은 <지친 / 맨>이다. 전시를 모두 보고 난 뒤에도 문득문득 생각나며 뇌리에 깊이 남는다. 이 작품은 기존과 달리 대상이 하나가 아닌, 남자와 암탉이라는 두 존재의 팽팽한 대치 상황을 보여준다.

그 장면은 마치 한 편의 소설 속 한 장면처럼 구성돼 있다. 관객은 두 존재 중 하나의 편에서 서서 장면을 관찰할 수도 있고, 혹은 심판자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도 있다. 암탉은 실재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노인의 편집증이 만들어낸 환영일까. 필자는 같은 인간이기에 자연스럽게 노인의 편에 서게 되었지만, 곧 그들의 갈등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에 이르게 됐다. 아마 그들은 밤이 되고 전시장 불이 꺼져도 여전히 대치 중일 것이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뮤익의 작업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상영되고 있었다. 그의 작업실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뮤익은 홀로 적막한 공간에서 조각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처음엔 어떻게 저렇게 고요한 공간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의아했지만, 곧 깨달았다. 창조적 영감은 꼭 활기차고 자극적인 환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고요한 집중 속에서 더 깊고 밀도 있게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뮤익의 작품이 그토록 구체적이고 섬세한 이유는, 아마도 자신만의 공간에서 오직 조각에만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 전시기간 : 2025년 4/11(금) ~ 7/13(일) · 관람비용 : 5,000원/대학생 무료
- 전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서울 중로구 삼청로 30)
- 관람시간 : 수/토: 10:00~21:00 월/화/목/금/일: 10:00~18:00

오늘의 장소

게임의 역사 속으로 - 넷마블 게임 박물관



“이 게임, 내가 진짜 좋아하던 게임인데...” 과거의 즐거움이 현재의 감동이 돼 추억으로 돌아오는 곳, 바로 ‘넷마블 게임 박물관’이다. 과거 게임은 매우 소박했다.

단순한 픽셀 그래픽과 단순한 버튼 조작으로 이루어진 스qip보이 스타마고치 스타게임 보이 등. 그러나 현재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한하게 디지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에는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인공지능까지 접목돼, 게임 세계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게임이 주는 ‘즐거움’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넷마블 게임 박물관에 입장하면 인트로 시어터에서 우리나라 게임 역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이 나온다. 이후 ‘보이는 수장고’ 코너에는 게임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콘솔 △스프리트웨어 △주변기기 등의 게임 자료가 전시돼 있다. 게임 직업 심리테스트를 통해 간단한 문제를 풀고 영수증 용지에 게임 직업 결과를 출력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스타게임 사

운드트랙 △라이브러리 △플레이 컬렉션 등 다양한 코너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플레이 컬렉션 코너로 △아케이드 게임 △콘솔 게임 △PC 게임 등 추억의 고전 게임들을 즐길 수 있다.

입장료가 결코 저렴하지는 않다. 그러나 게임을 사랑했던 어른들은 익숙한 소리에 멈춰 추억을 되살리고, 게임을 사랑하는 아이들은 처음 보는 게임에 눈을 반짝이는 진귀한 경험이 가능한 장소다. 게임을 통해 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이곳, 가족 혹은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방문해 있고 있던 그 시절의 즐거움을 되찾길 바란다. 우리가 사랑했던 게임은 여전히 추억 속에서 플레이 되고 있다.

송정아 수습기자 (songjeonga0328@skuniv.ac.kr)

- 위 치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3층
- 운영시간 : 10:00~18:00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 입 장 료 : 성인-10,000원, 청소년-7,000원, 어린이-5,000원

오늘의 영화

네모난 세상이 선사하는 행복만 모험 - 마인크래프트 무비 (2025)



▲ 출처 : 네이버영화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2011년 발매한 모장 스튜디오의 전설적인 비디오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원작으로 한 실사 모험

코미디 영화다. 재러드 헤스 감독이 연출하고 제이슨 모모아, 잭 블랙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며 추억의 세계가 실사화된다는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2025년 4월 개봉한 이 영화는 ‘자신이 창조하는 세계 속에서의 선택과 우정’이라는 게임의 핵심 의도를 담고 있다.

주요 등장인물은 주인공인 스티브, 과거 오라클 게임 챔피언이던 개릿, 상상력이 뛰어난 헨리, 그런 남동생을 홀로 돌보며 나탈리,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하는 던이었다. 남동생과는 다른 관점을 지닌 스티브는 자신의 숙원인 탄광에 들어가 가장 먼저 오버월드에 도착하게 된다. 헨리는 머리는 비상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좌절한다. 나탈리는 그런 헨리를 홀로 돌보며 각종 어려움을 겪는다. 개릿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의 문제에서 도피하며 지낸다. 던은 생존을 위해 뛰지만 힘든 삶을 이어간다.

이처럼 영화는 저마더의 문제에 직면한 네 명의 등장인물들이 신비한 포털을 통해 블록 세계 ‘오버월드’로 빨려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이들은 무미건조한 삶을 피해 오버월드에 정착한 스티브의 도움을 받아 현실로 돌아가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떠난다. 이 과정에서 오버월드를 파괴하려는 네더의 괴물인 지배자 말고사와 그녀의 군대에 맞서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인다. 오버월드의 구원과 각자의 행복을 찾기 위해 나아가며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단순한 모험을 넘어 상상력과 창의력,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실에서 좌절을 겪던 인물들은 블록 세계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성장한다. 영화는 ‘자유로운 상상과 창조’라는 게임의 본질적 가치를 스토리라인에 녹여내어 관객들에게 자신만의 세계를 발견하고 행복을 찾도록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상을 넘어 현실에 도착한 네모 세상의 이야기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떻게, 행복한 모험의 시간이 당신을 기다린다.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오늘의 음악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에게 위로를 전하는 음악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은 어떤 존재인가. 유독 고단한 하루였다면, 누군가 건네는 응원자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한 삶에 고민과 걱정을 나누고 공감과 응원을 보내줄 음악 세 곡을 소개한다.



▲ 출처 : 바이브

♪ 〈서, 어른〉 - 카뎀

“솔직히 무서워 인생은 참 어려워  
오답은 넘치지만 항상 정답은 없어

...  
어른이 되는 건 뭘까  
잘되지 않는 공감  
어른이 되려면 한참  
갈 길이 너무나 멀다”



▲ 출처 : 바이브

♪ 〈광합성〉 - 휘인

“나는 네가 아무 생각도 말고  
햇빛을 좀 받았을 싶어

...  
이젠 네 걱정 날려줄게  
햇빛 아래 따뜻하게”



▲ 출처 : 바이브

♪ 〈ICU (쉬어가고 돼)〉 - asepa

“Oh 언젠간 달을 수 있던 믿음에  
현실 속을 달려왔던 시간에  
오래 꿈의 무게 힘겨운 건 당연해  
그렇 땀 그냥 쉬어가도 돼  
Cuz I see you”

김규민 수습기자 (kyum7158@gmail.com)

오늘의 스포츠

이정호 감독의 질책, 애정인가? 갑질인가?

지난 5월 5일, '2025 하나은행 K리그1' 12라운드에서 광주FC가 김천삼우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경기 중 이정호 감독이 오후성 선수에게 보인 과격한 행동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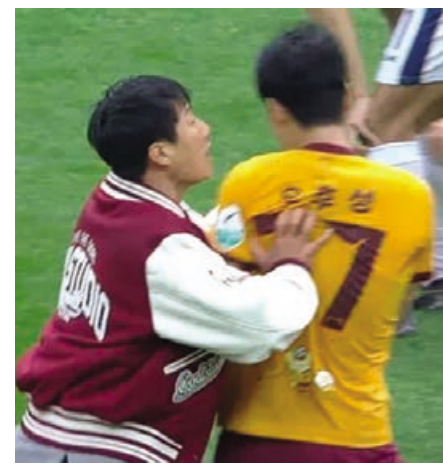
이 감독은 2022년, 재정난에 시달리던 광주FC에 부임했다. 이후 팀을 재정비하며 K리그2 우승과 창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러한 업적으로 인해 그는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으로도 거론됐다.

이 감독은 전술적 역량과 선수단 관리 능력을 동시에 갖춘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유망주 발굴과 선수 육성이 강점이며 선수들에게 강한 애정을 드러내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직설적이고 때로는 강한 어조의 언행으로 여러 차례 화제를 모은다. 과거 FC서울을 향한 비판적 발언이나 기자회견 중 벌어진 언쟁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그는 선수단 내부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구단도, 나도 힘이 없다. 노력으로는 안 된다. 미쳐야 한다” 등 열정적인 메시지로 선수들의 동기를 북돋는다. 또한, 선수들에게 선물을 전하며 친밀한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도 자주 포착된다.

문제의 장면은 전반 종료 직후 발생했다. 오후성은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려는 이 감독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오후성은 전반 내내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임무를 제



▲ 출처 : 한겨레

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이 감독은 그라운드로 진입해 오후성을 강하게 질책했다. 양팔로 밀치는 행동까지 이어지면서 현장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오후성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를 두고 축구 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감독이 오후성을 광장하길 바란다. 그만큼 기대가 컸고, 애정 어린 질책이었다”는 옹호와 함께 “어린날, 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폭력적 행동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맞섰다.

일부에서는 이 감독의 리더십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감독인 토마스 투헬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두 감독 다 전술적 역량과 유망주 육성 능력에 강점을 보인다. 하지만 거침없는 언행으로 자주 논란을

빚었다는 점이 공통으로 지적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감독은 공식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오후성과도 직접 면담을 통해 오해를 풀었다.

오후성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감독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웃으면서 마무리했다. 불화설이나 보복은 전혀 없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은 사건 직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연맹은 “많은 어린이들이 경기를 관람하던 상황에서 감독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K리그와 한국 스포츠 품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이에 광주 구단은 사건 경위를 소명하며 공식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연맹은 경위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 감독에게 엄중 경고를 부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감독의 행동은 경기장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지도자의 언행이 갖는 무게를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특히 어린날 벌어졌던 이번 논란은, 스포츠가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호성 수습기자 (hosung@skuniv.ac.kr)

